

**“너희가 조각한 우상을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힌두교 행사 압사사고 사망 최소 116명…대부분 여성·어린이**



인도 북부에서 발생한 힌두교 행사 압사 사고 사망자 수가 최소 116명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이 확인했다고 AP통신 등 외신들이 3일(현지시간) 전했다. 사고는 전날 우타르프라데시주 러크나우에서 남서쪽으로 약 350km 떨어진 하트拉斯 지역의 힌두교 행사장에서 행사가 끝난 뒤 참가자들이 서둘러 떠나던 도중 발생했다.

우타르프라데시주 경찰청장 프라샨트 쿠마르는 AP에 이번 사고로 적어도 116명이 사망했다며 사망자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이라고 말했다. 부상자도 80명을 넘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텐트 안이 무덥고 습해 숨이 막혔던 일부 참가자가 행사 종료 후 빨리 나가려고 달리기 시작하면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목격자는 현지 일간 힌두스탄타임스에 “사고 현장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고 출구가 없어 사람들이 쓰러지면서 참사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경찰은 행사 참가자가 1만 5천여 명으로, 주최 측이 허가 받은 참가인원 5천여 명의 3배에 달한 것으로 최초 보고를 받았으면서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행사에 참여한 게 사고의 한 원인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집단 패닉이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행사를 주최한 힌두교 설교자는 우타르프라데시주 전직 경찰관으로, 과거 20년 동안 이 같은 행사를 여러 번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최 측 과실이나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인도에서는 종교 행사와 관련한 압사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

2013년에는 중부 마디아프라데시주에서 힌두교 축제를 위해 사원을 찾았던 순례자들이 다리 위에 서 있다가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앞다퉈 벗어나다가 압사 사고가 나 최소 115명이 숨졌다. 2011년에는 남부 케랄라주에서도 종교 축제에서 압사 사고로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이사야 30:22,26)

하나님, 압사 사고의 위험에도 종교적 열심으로 매년 힌두교 행사를 찾는 인도의 영혼들 눈의 비늘을 벗겨주사 저들이 섬기는 신이 헛된 우상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마다의 행복을 찾아 갈망함으로 나왔지만, 사고로 가족을 잃은 자들의 황망함을 인도의 교회가 복음으로 싸매어 주어 이들의 심령이 고침을 받아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교회의 기도를 통해 인도의 영혼들이 자신들이 섬겨왔던 거짓된 우상들을 모두 던지고 참된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예수교회로 거듭나는 부흥을 주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파키스탄, 기독교인 박해 사건 SNS에 게시한 청년에 사형 선고

파키스탄 법원이 최근 한 기독교인 청년에게 작년 8월 편자브주 자란왈라에서 기독교인을 상대로 한 폭력 사태와 관련해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전했다. 지난 8월 자란왈라에서 두 명의 기독교인이 꾸란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진 후 폭도들의 공격으로 수십 채의 기독교인 집과 교회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는 심각한 공동체 갈등으로 확대돼 100명 이상 체포됐으나 지금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없다. 에흐산 샷 마시(28)는 자신의 틱톡에 이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가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영국 박해 감시단체 ‘법률 지원 및 정착 센터’(CLAAS-UK)는 파키스탄 기독교 공동체는 심각한 불의에 직면해 있고 생명, 재산 예배 장소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으며, 이 판결은 오늘날 파키스탄의 모든 기독교인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우려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아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사편 9:4,10)

하나님, 이슬람국가로 치우쳐 공의와 정의가 없이 기독교인을 향한 박해와 죽음으로 내모는 법원의 판결로 심각한 불의에 처한 파키스탄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마시 청년이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구하며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변호하시는 주님을 만나도록 일하여 주십시오. 두려움으로 위협하는 악한 사탄의 간계 앞에 파키스탄의 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며 어둠 속에 있는 파키스탄의 빛이 되어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 호주, 이단 신천지 포교 사회적 문제 야기

호주 주요 도시에서 이단 신천지의 모략 포교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8일 남호주 주도 애들레이드 매체 ‘디 에드버타이저’를 인용해 전했다. 2019년 신천지에 빠진 릴리 지위(26)는 “다니던 대학 중퇴, 언론사 인턴도 포기하고 가족과 친구들과 단절돼 신천지에서 세뇌 당하다가 어느 순간 탈퇴했는데 그들은 그런 나의 진심을 왜곡했고 개인성을 말살하려 했다”고 증언했다. 조지 게리(20)는 “작년 4월 신천지 성경공부를 시작해 9개월간 가족·친구들과 연락을 끊었다가 여러 사건 속에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며 “탈퇴할 때 길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고 자신을 신뢰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털어놨다. 애들레이드시 카르멜 눈 시의원은 신천지 피해 예방을 위한 강력한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단 전문매체 현대종교에 따르면 호주는 해외 신천지 중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나라 중 하나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누가복음 21:36)

하나님, 이단 신천지의 모략 포교가 호주 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주께 고하며 이 땅의 교회가 이 일에 통회함으로 주님 앞에 서며 더욱 진리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거짓되고 허망한 것을 쫓다가 삶을 망가뜨리는 이단과 사탄의 간계와 모략을 꾸짖어주시고 그의 세력을 파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거짓 메시지에 넘어 가지 않는 길은 복음이 전부 되는 것뿐이오니 호주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사수하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 이 땅에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하라” 기독교인 5명 체포



최근 라오스의 캄무안 주 타해 마을에서 다음날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 모임 중이던 목회자와 기독교인 등 5명이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션(ICC)에 따르면, 자이부아통 지역의 타해 마을 촌장과 보안 당국은 6월 22일 멈(Mum) 목사의 집에서 이들을 체포했다. 이들은 각각 24세와 40세 남성 2명과 23세, 28세, 50세 여성 3명으로, 현재 자이부아통 지역 교도소에 구금됐다.

인권 단체들은 마을 촌장이 마을 내 기독교 확산을 단속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신도들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멈 목사는 2019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이후 그리스도를 믿게 됐으며, 최근 촌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자신의 집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리고 2019년부터 약 40-50명의 기독교인이 멈 목사의 집에서 기도와 예배, 교제를 위해 모였다. 전임 촌장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기독교인에 대해 관대한 편이었지만, 현 촌장인 랑(Lang)이 선출된 후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더 심해졌다.

현재 라오스 헌법 제30조는 라오스 국민이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을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발표된 미 국무부의 2023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 따르면, 라오스 종교 지도자들은 도시 지역과 일부 지역 당국이 종교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농촌 지역에서는 종교 자유에 대한 부적절한 제한이 여전하다고 소개했다.

매년 전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를 발표해 온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2024년 ‘월드와치리스트’(World Watch List)에 따르면 라오스는 기독교 박해 순위 21위를 차지한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가장 박해가 악화된 나라는 라오스이지만, 오히려 라오스의 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믿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한 분석 전문가의 말을 전하면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베드로전서 4:12-13)

하나님, 날로 심해져 가는 박해 가운데 이 일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며 담대히 나아가는 라오스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이것이 교회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 말하는 이들의 고백과 같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든든히 서게 하사 그리스도의 생명 나타내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기독교 확산을 단속하며 성도들을 체포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복음의 빛을 비추사 악에서 돌이켜 주를 찬송하는 자들로 회복되어, 이 땅에 부흥의 행진이 멈추지 않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한국, 외신도 주목한 해외여행 못가는 ‘개근 거지’…성실한 사람이 놀림감

학기 중 해외여행 등 체험학습을 가지 않고 꾸준히 등교하는 초등학생을 ‘개근 거지’라고 비하하는 현상이 확산하면서 외신들도 이러한 한국의 문화를 조명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6일 “개근 거지는 누구인가? 일하고 공부만 하며 즐기지 못하는 한국 젊은이를 이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개근’을 평가하는 시선이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통적으로 개근은 미덕으로 여겨져 왔다.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맑은 바에 헌신하는 성실한 사람으로 평가받아 왔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일, 휴식, 놀이의 균형을 이루려는 태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젊은 세대에게 ‘개근’은 여행·휴식을 위한 시간, 비용을 쓸 여유 없이 오로지 학습과 수입 창출에만 전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 사회는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섬김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한다. 자신이 맡은 직임을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듯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왜곡된 시선임을 깨닫고 건강한 정신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기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오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잠언 28:5-7)

하나님, 이전 것을 기억하지 못한 채 지금 한국 사회가 누리는 풍요로움이 마치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여기며 충성과 성실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다음세대와 한국 사회를 책망하여 주옵소서. 물질주의와 성공을 위한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며 어린 학생들의 체험학습마저도 경쟁이 되어버린 사탄의 거짓된 속임을 파하여 주시고 진리로 왜곡된 시선을 벗겨 주십시오. 교회가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되어 충성되고 지혜 있는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 감비아, 여성 할례 금지 유지 권고안 채택

서아프리카 감비아 의회가 8일 ‘여성 할례’ 금지를 유지하라는 권고안을 채택했다고 연합뉴스가 9일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전했다. 의회의 보건·성 합동위원회가 마련한 이 권고안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격론 끝에 찬성 35표, 반대 17표, 기권 2표로 통과됐다. 권고안은 “여성 할례 금지를 폐지하면 여성들이 심각한 건강 위험에 노출되고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유지할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며 “여성 할례는 이슬람의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관습적인 신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오는 24일 예정된 최종 표결에서 이 법안이 가결되면 감비아는 여성 할례 금지를 철회하는 최초의 국가가 된다. 올해 유엔아동기금(UNICEF) 통계에 따르면 감비아는 15~49세 사이 여성과 소녀의 73%가 할례 시술을 받을 정도로 여성 할례 비율이 가장 높은 10개국 중 하나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린도전서 3:16-17)

하나님, 여성 할례가 금지된 지 9년 만에 다시 철회될 위기에 있었던 감비아에 여성 할례 금지를 유지하는 권고안을 채택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비아를 포함한 여러 이슬람 나라와 종족들 사이에 만연한 이런 악습이 끊어질 수 있도록 영혼을 노략질하는 사탄의 간계를 파하여 주시고 모든 영혼에 복음을 계시하여 주옵소서. 오는 24일에 예정된 최종 표결 결과를 주께 의탁하며 여성 할례 금지가 철회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이 영적 싸움에 교회가 복음과 기도로 무장하여 깨어 전심으로 달려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불 기둥으로 떠나지 아니하니라” 사하라에 빠·시신 나뒹군다…유럽행 난민 ‘죽음의 길’ 보고서



전쟁과 빈곤을 피해 유럽으로 향하는 아프리카 난민과 이주민들이 폭력과 성폭행, 장기 매매 등의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유엔 보고서가 발표됐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유엔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난민기구(UNHCR), 비정부기구인 혼합이주센터(MMC)가 공동으로 발행한 보고서를 인용해 사막을 가로질러 고국을 떠나는 이들이 처한 위험의 실태를 보도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아프리카 이주민 3만 1천 명 이상을 인터뷰해 작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민들은 성폭행, 고문, 성매매, 장기 적출 등을 당하거나 탈수와 질병으로 죽음에 내몰리고 있었다.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지중해를 건너는 난민과 이주민들이 직면하는 위협은 많이 알려졌지만, 사막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막에서 목숨을 잃는 이주민이 지중해에서 숨지는 경우보다 적어도 두 배 이상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하라 사막을 건너 숨진 사람은 1천180명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사하라 사막 등을 건너 이주민들이 성폭행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언급한 위협은 신체적 폭력이었다. 이들은 가족들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임의로 가두거나 강제 노동, 성매매,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인신매매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고문과 장기 적출 위험도 흔했다.

이런 폭력은 주로 범죄 조직과 민병대, 사람들을 유럽으로 안내하기 위해 돈을 받는 업자 등에 의해 발생했다. 2020년 유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중해를 따라 이동하는 여성 이주민의 약 90%가 성폭행을 당했고 일부는 성매매를 강요받기도 했다.

지금은 스웨덴에 자리 잡은 한 에리트레아 난민은 “사하라 사막이 죽은 사람들의 뼈와 시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이주민은 “갈증이나 부상으로 쓰러진 사람은 그대로 길에 버리고 간다. 절대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계속 가는 거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주민들은 리비아, 알제리, 에티오피아를 가장 위험한 국가로 꼽았다. 뉴욕타임스는 유럽 국가들이 이주민들을 막기 위해 일부 북아프리카 국가들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럽의 지원을 받은 보안군들은 이주민을 무방비 상태로 사막으로 돌려보내 이들의 생명을 또 한 번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출애굽기 13:21-22)

하나님, 전쟁과 빈곤을 피해 살길을 찾아 나섰지만 사하라 사막에서 끔찍한 폭력과 성폭행 등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아프리카 난민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과 같이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유럽 국가들이 이주민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에 자금을 지원하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음을 인정하며 겸손히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까지 멈추지 않는 여호와의 선하심이 유럽교회 가운데 부어져 난민들을 품으며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를 통해 아프리카에 예수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일본, 성전환 수술 없이 남→여 변경 인정

일본 히로시마 고등법원이 성기 수술 없이도 여성으로 성별 변경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국내 언론들이 11일 교도통신 등을 인용해 전했다.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40대 남성이 여성으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한 이 사건에서,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규정에서 외모 요건 충족을 위해 성전환 수술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호르몬 요법으로도 외부 생식기 모양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확인됐다며, 수술이 이뤄진 경우에만 제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도 특별히 여성으로 보기기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면 성별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학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날 으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암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이사야 59:13,20)

하나님, 성전환 수술이나 외모,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따라 스스로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며, 어리석고 패역한 길을 자처하는 이들의 반역을 고쳐주옵소서. 이러한 죄로 인해 혼란과 고통 속에 피폐해진 영혼들이 참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지음 받은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소서. 구속자가 필요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일본 교회를 통해 전해져 죄에서 돌이키고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 필리핀, 범죄자 얼굴 불법 성형해주는 병원 적발

필리핀에서 수배자와 범죄조직원들이 수사망을 피할 수 있도록 성형수술을 해주는 무허가 비밀 병원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고 국내 언론들이 10일 영국 BBC 방송 등을 인용해 전했다. 이 병원들은 온라인 사기, 불법 입국 알선·인신매매 등 온갖 범죄 온상인 중국계 온라인 도박장들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경찰은 마닐라 인근 파사이시에서 불법 병원을 수색해 의료행위 자격이 없는 베트남인·중국인 의사 3명과 중국인 약사 1명, 베트남인 간호사 1명을 체포했다. 필리핀 대통령 직속 조직범죄대책위원회의 윈스턴 존 카시오 대변인은 이 병원이 고객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않아 수배자나 불법체류자가 신분을 숨기고 새로운 얼굴을 얻는 데 이용됐다고 밝혔다. 필리핀 이민 당국은 2022년 12월 신원을 숨기기 위해 성형수술을 받은 중국인 폭력조직원을 체포한 바 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에스겔 18:31-32)

하나님, 온갖 범죄의 온상인 중국계 도박장들과 짹하며 범죄조직원들과 수배자들이 수사망을 피할 수 있도록 불법 성형을 해온 무허가 병원과 범죄자들을 꾸짖어 주시고 추적하여 주십시오.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서로 공존하는 악의 고리를 파하여 주시고 정직히 빛 가운데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사 스스로 중한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소서. 필리핀의 거룩한 교회를 통해 자격 없는 자에게 먼저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 받아 복음에 빛진 자로, 진리만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